“13세 때부터 애독자…지금은 ‘광주일보 선생님’으로 통해요”

조미옥 교사는 어릴 적 아버지가 즐겨보던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매일신문을 옆에서 보기 시작해 광주일보와 40년간 인연을 맺어왔다. 조씨가 매일 빼놓지 않고 있는 신문스크랩을 위해 광주일보를 펼쳐보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가족 3대가 광주일보 독자…조미옥 빛가람중학교 교사

교과서에 없는 생생한 소식
학생들 NIE 교육 큰 도움
손자까지 이어보는 신문되길

아버지를 따라 신문을 읽던 습관을 익힌 열 세살 소녀는 40년 뒤 제자들에게 ‘신문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다.

40년 전 TV는 물론, 라디오도 흔하지 않았던 시절, 그녀에겐 다른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신문 ‘광주일보’였다. 그녀는 당시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매일신문을 아버지가 손에서 놓는 순간 낚아채다시피 해 들여다봤다. 그 신문을 지금 자신 뿐 아니라 두 아들까지 챙겨본다.

나주 빛가람중학교 교사인 조미옥(여·53)씨의 광주일보에 대한 기억이다. 그녀는 광주일보를 지역 언론의 ‘거목(巨木)’으로 추켜세웠다. 신문에 실린 글에는 63년간 이어져 내려온 넉넉한 경험이 축적돼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여느 다른 신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했다. 그만큼 애착이 간다고 했다.

조씨의 광주일보에 대한 애착은 두 아들에게서 고스란히 읽혀진다. 대학생으로 성장한 큰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병원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얌전히 자리에 앉아 광주일보를 읽었다고 한다. ‘어린 애가 신문 펼쳐보는 게 참 기특하다’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을 정도라고 했다.

조미옥씨는 “3대가 이어 볼 수 있는 신문은 흔하지 않다”면서 “내가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본 것처럼 내 아이들도 광주일보 애독자가 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교사로서 학교 NIE 교육을 진행하면서 광주일보를 활용,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학생들도 자신들이 알만한 지역, 접해봤을만한 명소나 문화 공연 등을 기사로 읽게 되면서 훨씬 친근감있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조씨 설명이다.

광주일보를 즐겨 읽으면서 조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정보통’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매일 광주일보에 실린 지역 얘기들을 꾸준하게 읽었을 뿐인데, 별 것을 다아는 교사로 알려졌다는 것.

조씨는 더 나아가 ‘영산강에 유채꽃이 예쁘게 펴서 축제를 한다더라’ 등 관심있는 이야기들을 스크랩 해 친한 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랜 독자이다보니 광주일보에 게재되는 컨텐츠에 대한 의견도 날카로웠다.

광주일보 ‘컬쳐 & 피플’, ‘피플 & 라이프’ 코너의 경우 다른 신문과의 차별성이 확실히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보게 되는 지역민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매일 아침을 설레게 한다고 했다.

조씨는 “가까이 있는 지역민들의 애환과 웃음, 그들의 ‘삶’ 자체가 아이들에겐 진정한 멘토”라며 “교사가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을 학생들이 피플 & 라이프 지면을 통해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40년 넘는 애독자인 조씨의 광주일보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그녀는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소식, 생동감 있는 역사를 63년간 현장에서 전달해 준 공로는 칭찬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일보가 기존의 언론이 담아내지 못한 지역의 세심한 이야기들을 뚝심 있게 다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단체 사진 속에서 본인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처럼 우리 지역, 내가 사는 동네 소식을 찾아보기 위해 광주일보를 챙겨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 손자들까지 꾸준히 이어서 챙겨볼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 대표신문으로 우뚝 서줬으면 한다. 40년 독자 조씨가 광주일보에 전한 바람이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생들이 만든 세월호 헌정곡·뮤비 ‘화제’

SNS 조회 3000건 넘어서

전남대 학생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곡과 뮤직비디오를 제작,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이 제작한 뮤직비디오 ‘잊지 않을게’는 전남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오른 지 하루만인 19일 조회 수 3000건을 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전남대 2학년인 민본웅(24·동물자원학부)씨와 대학 랩음악동아리 ‘숨’ 회원 이민영(여·27·수의예과 1년), 이수현(여·22·국문학과 3년), 조영훈(25·수의예과 4년)씨가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4분 37초 분량의 뮤직비디오는 국내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I’m Fine, Thank You’에 가사를 입혀 편곡된 것으로, 노래를 연습·녹음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는 ‘메이킹 필름(Making Film)’ 형식으로 2주에 걸쳐 제작됐다. ‘이 작은 목소리로 돌이킬 순 없지만/같은 목소리를 만나 울려퍼지리란 믿음’, ‘세월이 지나 더 힘든 세월 오지않게/이젠 어른들이 약속해 역사를 밝혀줄게’라는 등 노랫말의 의미도 남다르다.

추모 헌정곡을 기획한 민본웅씨는 “세월호에 대한 의견을 주변 지인에게 물었더니 모두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소통을 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세월호 추모 함께한 광주경찰

서명운동 동참·평화집회 유도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와 관련, 광주경찰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클래스가 남다른 광주경찰’이라는 평가조차 나오고 있다.

19일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들을 대하는 광주 경찰의 태도’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지난 18일 오후 올라온 뒤 하룻만에 5만4587건의 조회를 기록하는 등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으며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으로 퍼날라지고 있다.

해당 사진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입장을 비교한 것으로, 서울경찰의 경우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을 쏘며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선 반면, 광주경찰은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등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광장과 광화문, 경복궁역, 종로 등에서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버스로 시민들을 둘러싸고 저지, 곳곳에서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발포하는 등 의경 2명과 집회 참가자 9명이 탈진 또는 부상을 입었다. 유가족 20명 등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반면, 지난 17일 금남로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광주시민대회’는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이 시민들의 서명운동에 동참하는가 하면, 국립5·18 민주묘지로 이동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치며 함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역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 “광주경찰 멋있다”, “국민을 지켜주는 진정한 경찰” 등의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

세월호 추모 충돌한 서울경찰

최루액·물대포…100여명 연행

‘세월호 1주기’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8일 오후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1만여명이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범국민대회 종료 후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유가족과 시민 등 100여 연행됐다.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으로 살포하며 참가자들을 막았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끝난 뒤 광화문광장에 모여 세월호 유가족 등 100여명이 농성 중인 광화문 누각으로 향했고, 경찰이 저지하자 차 벽으로 사용된 차량을 흔드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경력 1만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겹겹으로 저지선을 쳤다. 또 경찰 버스와 경력을 동원, 우회로까지 차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누각 쪽으로 가려고 세종대왕상 인근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물대포를 쏘며 저지했다.

경찰은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참가자 100여명을 연행했다. 이 중에는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이 20명이 포함됐고 일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해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빛원전 3호기 가동중단 원인은 제어회로 고장

지난 16일 재가동 4일 만에 가동이 중단된 영광 한빛원전 3호기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제어회로 고장으로 멈춰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3호기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정지 원인은 제어회로의 오신호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호를 받고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냉각재 펌프가 작동을 멈추고, 이에 따라 원전 가동도 자동으로 정지됐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측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냉각재 펌프 오신호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점검을 진행중이며 조만간 최종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한빛원전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장기간 점검을 했는데도 핵심 설비인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서 고장이 생긴 점을 감안, 점검(정비) 과정도 다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빛원전 측은 증기 발생기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의 지시 값과 시료분석 결과, 방사성 물질 누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여수서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어울림 축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체험학습 문화축제인 제1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여수엑스포장 일원에서 열렸다. ‘특별한 초대, 과학으로의 동행’을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린 어울림축전에는 전국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부모 등 10만 명이 참여했다. 15개 주제관과 200개의 체험 부스, 2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대부분 특수·과학 교과연구회 교사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됐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중흥건설 대표 이어 회장 소환 조사

비자금 조성 의혹 집중 추궁
신병 처리 결정 임박 관측

중흥건설 대표이사와 회장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들 신병 처리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께 정창선(73) 중흥건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회장도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정원주 대표이사와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인지·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정 대표이사에 대해서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 새벽 1시 3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이미 구속한 자금담당 간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수상한 자금 흐름 및 용처에 대해 정 사장이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 등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차례 소환 조사를 거쳐 일부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재소환이 이뤄질 경우 보강 조사를 거쳐 신병처리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현재 공식적으로 재소환 시기를 거론한 적은 없지만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범죄 환부를 도려낼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비자금 사용처 수사와 맞물려 진행될 경우 수사 시기가 애초 구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오늘의 날씨

해뜸 05:55 해짐 19:09 달뜸 06:57 달짐 20:49

비 내리는 ‘곡우(穀雨)’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다. 예상 강우량 5㎜내외.

◇ 지역별 날씨 (℃)

광 주	가끔흐리고비	15/17	보 성	가끔흐리고비	14/16
목 포	가끔흐리고비	12/15	순 천	가끔흐리고비	14/16
여 수	가끔흐리고비	14/15	영 광	가끔흐리고비	13/16
나 주	가끔흐리고비	14/17	진 도	가끔흐리고비	13/15
완 도	가끔흐리고비	13/16	전 주	가끔흐리고비	13/16
구 례	가끔흐리고비	15/17	군 산	가끔흐리고비	12/16
강 진	가끔흐리고비	14/16	남 원	가끔흐리고비	15/16
해 남	가끔흐리고비	14/16	흑산도	가끔흐리고비	10/12
장 성	가끔흐리고비	14/1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2.0~3.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	북~북동	1.0~2.5
	먼바다(동)	서~북서	1.5~2.5	북~북동	2.0~3.0
	먼바다(서)	서~북서	1.5~2.5	북~북동	2.0~3.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3:10	08:20
	15:21	20:33
여수	10:07	03:52
	22:34	16:06

◇ 생활지수

수면	70
운동	30
빨래	30

◇ 주간 날씨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7/23	8/22	9/22	9/23	10/22	12/22	12/23

집 비워달라는 전처에 앙심…아파트에 불지른 60대 자수

쌍나팔

○…집을 비워달라는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

○…1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김모(68)씨는 지난 18일 밤 11시40분께 여수시 국동 S아파트 5층 자신의 안방에 식용유를 뿌린 뒤 휴지를 태워 불을 냈는데, 이날 화재로 8층에 살고있는 한살배기가 연기를 흡입하고 주민 10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

○…관리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은 30분 만에 꺼졌는데,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주 전 이혼한 전처(43)가 집을 팔겠다며 비워달라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

/여수=김창화기자 chkim@